

마스크 해제가 가져온 피부의 외부환경

봄날의 햇살 같은 피부로 거듭나기大作전

마스크 해제가 되는 날!!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가. 그런데 정작 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로 들어가니(일부는 착용 의무 있음) 반갑지만 어색한 것도 사실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스크 해제일인 지난 1월 30일 신도림역 출근길에는 노마스크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여전히 불안하고, 3년간 우리의 일상을 흔들었던 팬데믹의 생채기는 여전했다.

그러나 쫄쫄 언 땅에도 봄의 기운으로 녹으며
만물이 소생하듯 봄날의 햇살 같은 피부로
거듭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입학과 동시에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학교 생활 내내 친구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생활을 한지 3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새학기와 함께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학부모 모임이나 교사 면담 역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웃픈 이 상황에서 거울을 찾게 되는 건 나 뿐일까.

보톡스 요법

모임이 바로 다음날 잡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안내문을 잘 살핀다. 보름 이후로 일정이 잡혔다면 안전한 셈이다. 가장 빠르게 잔주름을 잡아주고, 무너진 턱 라인까지 교정해주는 보톡스 요법을 추천한다. 피부 속부터 건강함을 채워주는 리주란 역시 권할만하며, 의료진과 논의 후 진행하면 된다. **#새학기증후군극복차앤박 #페이스라인교정 #광채피부리쥬란**

아듀! 코로나 세대 새학기 증후군 극복 중. 30대 학부모

결혼식 역시 정상화되고 있다. 하객을 부르는 게 민폐라는 건 이미 불식된 상태. 본식 웨딩에 친인척은 물론 하객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래서 더욱 신경 쓰이는 결혼 당일의 스타일링. 피부 역시 노보정의 굴욕에 무너질 수 없다. 그대와 나의 잔결음이 시작되는 것인가.

하루 전날 케어는 미리 밝히지만 SOS 응급처치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결혼식 당일을 D-DAY로 하고 스케줄을 짜서 준비한다. 다만, 대체적으로 결혼식을 앞두고는 많이 바빠 지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혼수품이 생각나기도 하고, 괜한 스트레스에 트러블이 갑자기 올라오기도 한다. 본식 당일 가장 빛나야 할 처방에 초집중해야 한다.

#웨딩하루전날케어 #노보정굴욕은가라 #예비신부신랑케어



결혼식 당일 노보정의 굴욕은 없다. 예비 신부신랑



175mm 마스크 뒤에 용케도 숨어 있었다. 그런데 마스크 해제하며 커밍아웃 했고, 이제는 여행도 가고, 여름도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조금은 흐트러진 내 피부를 바로 잡고, 해결만이 살 길이다. 일단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시술부터 사수하자.

그동안 뒤죽박죽이 되었지만 이제는 본 궤도의 스케줄로 외출도 하고 장거리 여행 계획도 세우게 된다. 무엇보다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제모, 팔꿈치나 겨드랑이의 색소침착도 해결하도록 한다. 미리 준비해야 노출의 계절이 반갑다.

여름 준비 시작!! 일상 생활로 돌아 가고 있는 나



이제 곧, 마스크가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주 빠른 속도로 말이다. 지금 필요한 건 봄날의 햇살 같은 피부가 되기 위한 빠른 태세 전환이다. 피부 문제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말고, 당신의 피부주치의를 찾을 때다. 이 대작전의 암호명은 '차앤박피부과' (끝)